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¹⁾

The Effect of Prosocial Intervention on Friendship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이 세 나*
Lee, Sae na
이 영 석**
Lee, Yeung-su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prosocial intervention program on the friendship and empathy of preschool children. Half of the 50 five-year-old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half to the control group.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16 units of activity in the prosocial intervention program. After treatment, the 2 groups were tested with the affective Situation Test and the development of conceptions of friendship.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athy and friendship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ut not between boys and girls.

본 논문은 1999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의 일부임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유아교육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성장을 돕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아교육을 비롯한 모든 학교교육이 사회적인 면보다는 인지적인 면에서의 발달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에 대해 많은 교육자들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 형성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제기해 왔다(이윤옥, 1992).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 등의 근간이 되며,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였다.

유아들의 사회적 환경은 가정에서 또래집단으로 확대되어진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에서 평가될 수 있다. 또래 집단의 중요성은 또래집단에서의 친구관계가 유아에게 사회적 지식을 넓혀주고 집단 속에서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하여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길러 주는 것(김성태, 1984)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공헌하며 정체감, 가치, 신념 등을 형성시키고 성역할 발달, 자아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나병술, 1969). 친구관계의 경험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 실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자기이해로 확산과 연결된다.

Howes(1983)는 탁아소에 다니는 14-24개월 영아를 1년 동안 관찰한 결과 한 동료나 더 많은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선호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3년 6개월 된 유아의 20%, 4세 유아의 50% 정도만 진정한 우정을 나타냈다는 것이다(김경중·류왕효·류인숙·박은준·신화식·

정갑숙·조경미·조희숙·최인숙·최재숙, 1994, 재인용). 5, 6세가 되면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어지고 또래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 시기의 유아는 또래에게 더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또래의 요구에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초기의 우정은 나이 든 유아들의 진정한 우정보다 덜 안정되고 놀이에 많은 관심을 둔다.

한편, 성별에 따른 성역할과 사회화 과정의 차이는 우정개념의 발달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아는 남아보다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친구 관계를 가지며(Douvan & Adelson, 1966), 동성의 친구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나타내며(Maccoby & Jacklin, 1974), 친구 상호간의 실제적인 반응 양상에서도 더욱 친사회적이고 독점적 우정관을 갖는다고 하였다(정경미, 1992, 재인용). 반면, Berndt(1982)는 남아에게 우정은 친구와 친밀하지 않은 아동에게서도 유사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미정(1985)의 우정개념의 발달연구에서는 애정, 지지, 일반적 활동이라는 우정의 하위개념에서 현저한 성차를 보였다. 그러나 박희숙(1984)의 우정발달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Bigelow와 La Gaipa(1975)는 친구에 대한 기대개념을 연구하였는데, 21가지 차원 중에서 '도움 받기', '조직 놀이' 차원에서만 성차를 보였다고 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이해는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행동 또한 그러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여러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자신과 친구의 조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놀이를 계속하려면 아동은 친구

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는 우정과 함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함을 보여준다.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지만, 그 개념은 이미 19C말에 등장하였다. Wind(1963)에 의하면 1873년도에 미학분야에서 미학심리학과 형태지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때 Visser가 독일어의 Einfühlung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박성희, 1996). 공감은 단일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로 구성된다. 즉 공감은 사회적 이해를 매개하는 정서적 감응과 사회적인 이해의 결과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라는 양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감의 발달은 타인을 인지하는 수준과 아동이 사회인지 발달단계를 거쳐 발달함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과 성인의 타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 경험이 감정이입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며, 아동의 인지적 능력 또한 감정이입 반응과 사회적 발달의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김선희, 1996). 아동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즉 타인의 내적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원활하게 대인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영아들이 성인의 감정표현에 반응하며,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는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자타의 구별이 가능해져서 자신이 겪은 정서적인 반응이 다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초보적 역할 수행을 하는 2~3세 경의 유아는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과 같지 않다는 감정조망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진, 1990, 재인용). 3, 4세 경 유아는 언어의 발달과 함께 광범위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나, 감정이입의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Burnes와

Garey(1957)는 얼굴표정과 갈등상황의 그림을 제시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5-7세 아동은 얼굴표정에 따라 반응하였고, 학령 전 아동들은 정보와 상황단서에 의존하였다(고인옥, 1993). 또, Reichenbach와 Masters(1983)의 실험에서는 4세 아동은 타인의 표정으로, 7세 아동은 상황적 정보로 타인의 행복 정서 반응을 추론한다고 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같은 상황이 사람에게 따라 다른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단일 상황이 같은 사람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복합감정 조망수용능력도 발달한다. 하지만 상황과 정서를 매개하는 내재적 추론은 아동기에 들어서야 완성될 수 있다. 즉, 아동이 타인의 내적 심리를 이해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속성의 이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은 남성과 여성에게 속하는 많은 특성 중 여성의 속성으로 간주되어진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을 잘 돌보고 이해하는 인간관계 지향적이라는 믿음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진다. 감정이입에 있어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vine과 Hoffman(1976)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여아의 공감능력이 남아보다 우월하였고, Eisenberg과 Lennon, 그리고 Roth(1983)의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을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성차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생리적 반응의 측정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홍정주(1988)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감정이입검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신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 유아들의 생활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사들이나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성 부족이나 사회적 부

적용 유아가 많이 있으며 이들 부적용 유아를 지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윤옥, 1992).

본 연구의 친사회적 프로그램은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 결과는 공동체 및 작업에의 참여도, 또래수용과 우정관계, 가족과 중요한 타인에 의한 수용도, 사회적인 독립성,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등이다. Scott(1991)은 협동수업, 예절교육, 사회규범이해, 지역사회 연대, 친사회적 가치교육, 타인보호활동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모범적인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이나 실천 기회를 많이 가진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친사회적 행동에 적합한 감정이입, 모범, 사회적 책임감 등의 요소를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구정화·정문성·차경수, 1997).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이 관점을 폭넓게 고려

하도록 하는 역할 역시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설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의 예측요인인 공감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직접적인 수단인 되는 기능적인 능력이며 도덕적 상호작용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우정개념의 변이를 보고자 한다.

가설 1 :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간에는 공감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간에는 우정개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남아와 여아는 공감능력 및 우정개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C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남·여 유아 5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25(남: 13, 여: 12)명은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에, 나머지 25(남: 13, 여: 12)명은 비교집단에 무선배정하였다. 두 집단의 사례 수 및 성별과 평균 연령을 제시하면 <표 1>과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특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남	여	남	여
사례수	13	12	13	12
평균연령(개월)	5.08(61)	5.33(64)	5.42(65)	5.25(63)
계	25		25	

같다.

2. 측정도구

1) 우정개념발달 측정검사

우정개념발달 측정도구는 Furman과 Bierman(1981)의 실험을 기초로 하여, 김미정(1984)이 사용한 검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검사는 면담(질문1. 친구란 무엇이니?, 질문2. 친구는 왜 필요할까?, 질문3. 친구와 무엇을 하면서 지내니?)과 면담의 보조수단인 그림카드 구성되어 있다. 면담 자료는 '지지-5점, 애정-4점, 일반적 행동-3점, 가까움-2점, 신체적 특징-1점, 무응답-0점'으로 분류하여 채점하였다. 따라

서,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15점이다.

2) 공감능력 측정 검사-정의적 상황검사 (Affective Situation Test)

정의적 상황검사(AST)는 Feshbach와 Roe(1968)가 고안한 검사도구로, 김선희(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 검사는 4가지 정의적 상태-기쁨, 슬픔, 공포, 분노를 묘사한 8가지 이야기를 3단계의 그림으로 유아에게 제시한 뒤 '이 때 주인공은 어떤 마음일까?, 너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본 검사의 채점 방법은 틀린 답이나 무반응일 경우는 0점, 좋다 또는 나쁘다 등의 객관적인 반응을 보이면 1점, 그리고 주인공의 정서와 일치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2점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16점이다.

3. 실험처치 프로그램

친사회적 행동이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

적으로 행해지며,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협동, 나누기, 도와주기, 감정이입, 우정 등의 본질에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설적인 사회적 행동인 관용(generosity), 나누어주기(sharing), 자선(charity), 돕기(helping), 공감(empathy), 위안(comforting) 등의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활동 중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습자료를 나누어 쓰게 함으로써 타인의 욕구와 관점을 이해하고, 우정개념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협동학습은 그 과정에서 유아들이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4가지 하위범주 즉, 긍정적 상호작용, 공유활동의 설정, 친밀감, 협동 등의 사회적 과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동화, 미술활동, 그리고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집

(표 2) 친사회적 프로그램의 내용

활동	활동내용	활동방법	시간(분)
1	새로운 친구	이야기 나누기	30
2	친구와 같은 점과 다른 점	이야기 나누기	30
3	친구모습 꾸며주기	미술활동	45
4	우리 친구를 찾아주세요	게임	45
5	친구가 필요해요	동화	30
6	상황보고 이야기 나누기 1	이야기 나누기	30
7	상황보고 이야기 나누기 2	이야기 나누기	30
8	기분 목걸이	미술활동	45
9	감정 그림 그리기	미술활동	45
10	잉어를 찾아서	동화	30
11	표정으로 감정 전달하기	게임	30
12	서로 도와요	동화, 미술활동	45
13	친구의 힘을 모아	게임	40
14	서로 나누어요	이야기 나누기	30
15	누구와 놀지	동화	30
16	커다란 모자	게임	45

단 활동과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며 유아들이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한다.

친사회적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4. 실험절차

1) 실험자 선정 및 훈련

실험자는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보조 연구자 한 명으로 모두 2명으로 하였다. 먼저 보조 연구자에게 친사회적 프로그램과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대한 개념, 연구의 의의, 친사회적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사후검사와 검사방법을 교육하였다. 보조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 처치중 보조교사 역할을 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함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실험처치 프로그램 실시

실험처치 프로그램은 16회분으로 1주에 5회씩 4주간 실시되었다. 실시기간은 1999년 7월 19일부터 1999년 8월 9일까지였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회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은 30~45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사후검사 실시

친사회적 프로그램 투입후 사후검사로 우정개념 발달 측정검사와 공감능력측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1999년 8월 10일, 11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검사자는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명이었다. 본 검사들은 개별 면담형식으로 먼저 유아와 라포를 형성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7.5 프로그램의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설정된 연구문제의 결과를 제시하기 앞서 실험 집단 남녀 유아와 비교집단 남녀 유아 각각의 공감능력 측정 검사와 우정개념발달 측정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별 공감능력 및 우정개념 발달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검사	집단	N	M	SD
공감능력	실험집단	25	11.442	.96
	통제집단	25	9.082	.53
우정개념 발달	실험집단	25	8.722	.23
	통제집단	25	6.323	.64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간에는 공감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다.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4>과 같다.

<표 4> 공감 능력 측정 점수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72.18	1	72.18	9.62*
성별	12.69	1	12.69	1.69
집단×성별	6.19	1	6.19	.83
잔차변량	345.01	46	7.50	
전체	433.62	49	8.85	

*p < .05

〈표 4〉에 의하면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와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의 유아들간에는 공감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6}=9.62, p<.05$). 즉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M=11.44, SD=2.96$)이 비교 집단의 유아들($M=9.08, SD=2.53$)보다 공감능력 측정 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수용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간에는 우정개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우정개념발달 점수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집단	71.39	1	71.39	7.69*
성별	4.64	1	4.6	.50
집단×성별	.54	1	.54	.06
잔차변량	426.80	46	9.28	
전체	506.42	49	10.34	

* $p<.05$

〈표 5〉에 의하면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와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의 유아들간에는 우정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6}=7.69, p<.05$). 즉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M=8.76, SD=2.18$)이 비교 집단의 유아들($M=6.32, SD=3.64$)보다 우정개념발달 측정 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수용되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남아와 여아는 공감능력 및 우정개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그 분석 결과는 〈표 4〉과 〈표 5〉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아들과 여아들간에는 공감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6}=1.69, p>.05$). 즉 남아들($M=10.65, SD=3.03$)과 여아들($M=9.83, SD=2.91$)은 공감능력 측정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표 5〉에 의하면 남아들과 여아들간에는 우정개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6}=.50, p>.05$). 이는 남아들($M=7.15, SD=3.04$)이 여아들($M=7.96, SD=3.41$)은 우정개념발달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우정발달수준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공감능력 측정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위장할 수 있는 정서인식 능력이 향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승희(1997)의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증가 요인보다는 정서교육 경험 활동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프로그램은 자연적인 연령이라는 요인보다 유아의 정서 지각과 정서 인식 즉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우정개념발달 측정 검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구에 대한 지식 및 우정개념이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경험 모두를 통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친구에 대한 정의 및 기대는 인지적 발달측면과 깊이 관련되며 우정 형성 및 종결원인은 인지발달보다는 특정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Bierman(1986)은 또래 관계를 증진을 위해 '협동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친구에 대한 인지적 학습과 협동학습은 유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또래 학습을 활발하게 하고, 긍정적 또래관계를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감정이입 능력의 측정에 있어서 여아와 남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감정이입의 성차에 관한 결과를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이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은 여성의 성역할의 정형화된 요소 중의 하나로 감정이입이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여아는 남아보다 더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 받고 양육되며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자는 보다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이에 반응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고정적인 성역할에 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화되는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최근 많은 유아들은 예전에 비해 자신의 정서적 경험 표현에 관대하게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공감능력에서 여아와 남아의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유아의 우정개념발달의 측정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정개념 발달수준에서 보여지는 성차는 여아는 친구에게 더욱 친사회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남이는 여러 유아들을 자신의 우정관계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우정관계 양상을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남녀를 막론하고 친구에

게 기대하는 것은 도움을 주고받거나 애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정개념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연령(만 5세) 집단을 선정하여 친사회적 프로그램의 투입 여부에 따라 공감 능력과 우정개념의 변이를 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연령의 폭을 넓게 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폭넓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령 변이를 상세하게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감정이입 능력과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이타 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감정이입수준에 따라 남을 돕고자 하는 성향, 즉 이타심과 감정이입과 관련성과 실제 이타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유아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관찰연구가 요구된다.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시대정신의 결과인 것 같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 보다는 생활을 위한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행동발달 형성기인 유아기 때부터 조력, 협동, 자선, 신뢰 등을 실천할 줄 아는 인간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친사회성을 증진시키고 또,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유아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의 연령과 환경 그리고 성향을 고려한 교수 활동과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인옥(1993). 어린이의 친구관계 개념과 타인 감정 추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정화 · 정문성 · 차경수(1997). 유아사회교육. 서울: 학문사.
- 김경중 · 류왕효 · 류인숙 · 박은준 · 신화식 · 정갑숙 · 조경미 · 조희숙 · 최인숙 · 최재숙(1994).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김미정(1984). 아동기 우정의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1996). 아동의 감정이입 수준 및 상황에 따른 도덕적 민감도 발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태(1984). 발달 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정진(1990).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병술(1969). 아동발달. 서울: 대학출판사.
- 박성희(1996). 공감, 공감의 이해. 서울: 원미사.
- 박희숙(1985). 6, 7세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발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승희(1997). 정서교육활동 경험의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 이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옥(1992). 또래관계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미(1992).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정주(1988). 아동기 감정이입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mdt, T. J.(1982). The feature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ierman, K. L.(1986). Process of change during social skills training with preadolence its relation to treatment outcome, *Child Development*, 57, 230-240.
- Bierman, K. L., & Furman, W.(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5, 151-162.
- Bigelow, B. J., & La Ga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6), 857-858.
- Bryant, B. K.(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rckley, N., Siegel, L. S., & Ness, S.(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30.
- Eisenberg, N., Lennon, R., & Roth, K.(1983). Pro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46-855.
- Eisenberg, N., & Miller, P. A.(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1, 91-119
- Fabes, R. A., & Eisenberg, N., & Miller, P. A.(1990). Maternal correlates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 639-648.

- Feshbach, N. D., & Roe, K.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in two age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1*, 102-107.
- Hoffman, M. & Levine, L. E. (1976). Early sex difference in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7-558.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Masters, J. C., & Furman, W. (1981). Popularity, individual friendship selection and specific peer interactions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44-350.
- Mize, J., & Ladd, G. W. (1990). A cognitive-social learning approach to social skill training with low status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88-397.
- Parker, J. G., & Asher, A.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for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Child Development, 29*, 611-621.
- Reisman, J. M., & Shorr, S. I. (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s among children and adult. *Child Development, 49*, 913-916.